

## 댁의 남편은? < 강한 여자, 약한 남자 -1 편>

댁의 남편은 기 좀 펴고 사십니까?

현대를 사는 같은 남자 입장에서 요즈음 남자들의 입장이 말이 아니다. 고개숙인 남자, 주눅든 남자, 눈치보는 남자, 기죽은 남자, 결정권이 없는 남자, 시키는대로 사는 남자, 밥만 축내는 남자, 힘도 못쓰는 남자, 성가신 남자, 귀찮은 남자, 왜 같이 사는지 모르는 남자 등등.. 남자가 남자같지 않는 세상이다. 불과 20 여년 전부터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여자가 대세다. 비지니스 브로커라는 이 직업을 하다 보면 징크스가 있다. 사업체를 결정할 때 남자가 반대하고 여자가 찬성하면 매매가 가능하다. 반대로 남자가 찬성하고 여자가 반대하면 백전백패로 매매가 깨어진다. 한마디로 남자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다. 이러니 나도 여자 손님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여자들이 무섭다. 또 다른 예를 보자. 언제부터인가 사법고시든, 국가고시든, 대학 졸업식이든, 수석 졸업이나 수석 입학을 여학생들이 차지하기 시작한다. 각종 고시 합격생도 여자가 더 많다. 만약 회사 승진도 시험을 본다면 여자들이 더 빨리 승진할 것 같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시험쳐서 당선된다면 여성들이 판을 칠지도 모른다. 카톨릭 교황이나 목사나 스님도 시험을 쳐서 뽑는다면 여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왜 여자들이 더 똑똑해진걸까? 우리 세대만 해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였다. 특히 전문직 분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가뭄에 콩나는 격이다. 감히(?) 남자의 갈비뼈 한개로 만들어진 여자들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 세력이 강해진걸까? 자식들도 딸 둘이면 '금메달'이고,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이라는 세상이다. 나에게도 대학 들어가는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이놈의 앞날이 걱정이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아내의 최종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처음 이민와서 놀란 것은 이곳 여자들의 힘이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후광처럼, 엄청나게 세다는 것이다. 이곳 여자들의 '기도빨'이 강해서 그런가. 남편이 장로든, 교수든, 구멍가게 사장이든, 장르를 가리지 않고 아내의 눈빛만 변하여도 남자들은 그자리에서 꼬랑지를 내리는 것이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나 뭐래나. 물론 개중의 남편들중에는 큰소리를 치는 남편도 있고 허세를 부리는 남편도 있다. 하지만 남편 본인만 큰소리를 칠 뿐, 아내나 자식들은 전혀 개의치

않으니 스포링 상대도 못되는 것이다. 아니면 아직은 남편이 사지육신 멀쩡하고 ‘달리벌이’에 효용가치가 있어서인지, ‘남편은 집안의 머리이다’라며 뒤에서 원격조정하시는 고차원의 여자분들도 있다. 물론 지나친 비약이고 과장이며, 지레 겁먹은 나의 자격지심으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다. 어쨌거나 우리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지금의 남자들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반대로 여자들의 파워가 엄청 강해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었다.

나는 세가지로 요약하고 싶다. 조직이든, 권력이든, 승리자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를 손아귀에 움켜쥐어야 한다. 첫째는 자금력(돈)이고 둘째는 정보력과 인맥이고 셋째는 전문성이다. 만약 당신이 아내보다 큰소리를 치고 있다면 이 세가지 모두를, 아니면 적어도 두가지는 움켜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도 큰소리를 치고 있다면 당신은 빛좋은 개살구이거나 봄날의 털갈이하는 개털 신세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여자들이 이 세가지를 쥐게 되었을까? 먼저 여자들이 돈을 번다는 현실이다. 즉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다. 1969 년도에 미국 주부의 일하는 사람은 38%였지만 1990 년대 후반에는 이미 70%를 넘어섰다. 지금은 미국 주부들의 80% 이상이 일을 하고 있다. 즉 돈을 벌고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집안에서 아무런 경제적 보상없이 가사일만 하는 여성들보다 성취감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 대하여 한 개인이 전심전력을 다 할 때, 혹은 그 보수와 관계없이 사람의 재능이나 활력을 끌어낸다면 그 일은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1970 년대부터 미국가정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여성평등이라는 사회적 운동과 함께 여성에게도 동등한 교육이 보장된 것이다. 민주주의 선두주자로 자부하는 미국도 여성과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못하도록 현실화된 것은 불과 50 년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날의 미국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대학교에 더 많이 가고있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의 수입과 기회가 급증하였다. 또 이런 전문 여성들의 남편은 대체로 수입이 상위 20%의 여유있는 사람들이며, 교육 수준도 높다. 젊은 여성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반면,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64%만이 대학에 진학한다. 2007 년 기준으로 여자대학생은 920 만명인 반면에, 남자 대학생은 690 만명에 그친다. 어느 역사에서나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차별화했다. 지배자가 더 높은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

지금의 이슬람교도들처럼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자들을 문맹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도 불과 40년전만 해도 <큰아들> <큰오빠>를 대학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자식들의 희생이 당연히 되던 시절이 있었다. 여자는 적당한 의무교육이나 마치고 일찍 시집가서 자식들 많이 낳는 일이 여자의 일생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당연히 여자들의 교육수준이 남자들보다 떨어지게 되고 남편들이 큰소리를 치게 된 것이다. 그러던 것이 국가정책으로 자식을 한두명으로 제한하자 여자들에게도 동등한 교육여건이 제공되었으며, 결과는 여자들의 교육수준이 남자와 비슷하거나, 더 잘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신경제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신분상승이나 계층변경이 거의 불가능해지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주된 요인이 <교육의 불평등> 때문이다.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야기는 점점 '가을의 전설'이 될 뿐이다.